

도내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운영

전북교육청, ‘학교 복귀-학업 지속’ 지원… 지역사회 연계 보호관찰소와 협의 통해 안정적 학교생활 돕기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역 사회와 연계한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전문 교사가 정기적으로

상담·공감·생활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 교사들은 2017년부터 전주·군산·남원·정읍 보호관찰소와의 협업을 통해 월 1회 이상 보호관찰학생을 만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최근 보

호관찰소와 업무협의를 통해 △보호관찰학생 낙인효과 최소화 △교육청·학교·보호관찰소 협력 체계 강화 등 보호관찰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적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북교육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에코너지 캠퍼스 중심 관·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국립군산대, 새만금청과 협약

국립군산대학교와 새만금개발청은 28일 새만금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군산대의 ‘새만금 ECO-UP 프로젝트’와 연계한 관·학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새만금 미래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관·학 협력 모델과 공동 거버넌스 구축 △에코너지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 협력 △신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관련 협력 △해양 바이오 및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개발 및 실증 관련 협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새만금 발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도모 △관·학 협력 모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립군산대는 교육부의 글로벌 대학30 사업 예비 지정을 앞두고 ‘새만금 ECO-UP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 밀착형 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학 모델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5~2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Y-FARM EXPO 2025’ 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농촌유학의 우수성을 알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농촌유학, 수도권을 사로잡다

전북교육청, 수원 컨벤션센터 ‘Y-FARM EXPO 2025’서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5~2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Y-FARM EXPO 2025’ 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농촌유학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 박람회는 연합뉴스와 농업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귀농·귀촌, 농촌 일자리 및 교육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행사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박람회장에 농촌유학 상담(홍보) 부스를 설치해 전북 농촌유학의 운영 방식, 참여 절차, 유학생 지원제도, 특색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농촌유학 참여 희망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병행해 호응을 얻었다.

전북 농촌유학은 현재 도내 28개 학

교에서 2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체류형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농촌유학 참여 가정에 월 체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학교별 특성에 맞춘 생태·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도시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여는 수도권 학부모들에게 전북 농촌유학의 강점을 직접 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였다”며 “전북 농촌유학은 생태 감수성, 공동체 정신, 전인적 성장을 돕는 미래형 교육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JOB DAY 취업박람회’ 29일 개최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9일 오후 1시부터 체육관에서 ‘JOB DAY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산업체 채용정보 설명회, 상담체험부스, 청년고용정책 홍보부스, 실전대비체험 프로그램 부스, 이벤트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11, 대림씨앤씨, 알에프세미, 더메이 등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채용설명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흥미제고를 위해 퍼스널컬러, 캐리커처, 한수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스텝스, 휴먼제이앤시, 국제커리어센터 등과 협업해 청년고용정책에 설명회도 이뤄진다.

/장은성 기자



지난 23~25일 전북대학교 박천웅 국제협력부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중국 산둥성 연태를 방문해 연태대학교 국제교류원에 ‘JBNU국제센터’ 현판 부착을 완료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제3호 JBNU 국제센터, 중국 연태에 개소

전북대, 中 동부 지역 유학생 유치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중국 산둥성 연태에 ‘제3호 JBNU국제센터’를 개소했다.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3~25일 박천웅 국제협력부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중국 산둥성 연태를 방문해 연태대학교 국제교류원에 ‘JBNU국제센터’ 현판 부착을 완료했다.

이번에 개소한 연태 JBNU국제센터는 지난해 모로코와 태국에 이어 전북대가 해외에 세운 세 번째 국제 유학생 유치의 거점이다. 앞으로 전북대는 중국 동부 지역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목표로 현지 밀착형 입학상담과 맞춤형 교육, 문화교류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천웅 국제협력부처장 등 관계자들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연태대학교 국제교류원을 비롯한 현지 협력기관들과의 구체적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유학반 학생과 학부

모를 대상으로 전북대의 교육과정과 장학제도, 다양한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특히 현장에서 진행된 실시간 질의응답과 진학 상담을 통해 현지 실질적인 유학생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연태 JBNU국제센터는 중국 내에서 전북대의 국제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유학생 유치와 현지 교류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 거점”이라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에 JBNU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지난 2023년 글로벌 대학30 사업에 선정된 이후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를 목표로 해외 거점 운영과 맞춤형 홍보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유아 디지털 문해력 올바른 이해 돕는다

전북교육청, 지원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교사들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교원의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디지털 문해력의 개념과 교육적 가치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연계 방안 △교실 적용 사례 및 실천 전략 등으로 진행됐으며,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 유아의 일상 속 미디어 노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중심이 돼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유아의 문해력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디지털 시대 유아교육의 방향성과 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디지털 문해력 지도 방법을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학교는 28일 본관 2층에서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와 청년 공익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청년 공익활동·자원봉사 활성화 ‘맞손’

전주기전대,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와 협약 체결

전주기전대학교(총장 조희천)는 28일 본관 2층에서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청년 공익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 세대의 자발적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공익활동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 자원봉사 및 공익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청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제공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수요처 연계 △청년 대상 자원봉사 교

육 및 비교과 활동 제도적 지원 △공익활동 관련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정보 및 지원 제공 등이다. 이외에도 청년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은 상견례 및 차담을 시작으로,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양 기관 대표자의 인사말, 협약서 낭독 및 서명, 청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심층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덕현 부총장, 김광수 교무학생처장, 이운서 학생복지센터장, 기익환 교무학생부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 박환우 협력사업부장, 백상수 협력사업부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